



“감염경로 미궁”... 방역당국 초기진장

23~24일 7명 코로나 확진... 1명 감염원인 미상
24일 기준 총 568명 확진속 29명은 격리 치료중
종업원 확진 해장국집 공개... “방문객 진단검사”

제주지역에서 이들 사이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근무한 식당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n차감염이 잇따라 방역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7명(562~568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568명으로 늘었다. 또 이날 들어서는 46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562번은 도민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다. 526번은 수도권을 다녀온 지인을 포함해 이 지인의 가

족과 접촉했으며 지난 2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이 562번과 접촉한 16명을 상대로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이중 3명(564번·565번·566번)이 양성으로 판정됐다.

564번은 지난 10일부터 몸살 기운 또는 몸이 추시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565번은 지난 20일부터 약간 추시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상태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566번도 별다른 증세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명은 현재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562번을 포함해 564번은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김영미재첩해장국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565번과 566번은 이 식당을 방문한 손님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지난 10일부터 23일 사이 이 식당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이 식당에 대한 방역 조치를 마무리했다.

567번과 568번은 수도권을 방문하는 동안 각각 다른 경기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567번은 최근 수도권을 방문하고 온 도민이다. 지난 23일 경기도 남양주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 받고 24일 진단 검사를 받았다.

568번은 수도권에서 입도한 관광객이다. 568번은 경기도 수원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 받고 24일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567번과 568번 모두 코로나19 증

상은 없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563번은 지난 9일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중랑구 확진자 A씨의 가족이다. 563번은 자가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23일 받은 코로나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563번의 가족인 A씨는 지난 8일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 받은 후 결과가 채 나오기 전인 지난 9일 제주에 왔으며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563번을 포함해 가족 5명과 함께 제주에 왔으며 앞서 양성을 판정을 받은 540번 등 가족 2명이 감염됐다. 540번은 제주에 온 다음날인 지난 10일 이미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24일 오후 5시 기준 도내서 격리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29명(용산구 확진자 1명 포함), 자가 격리 인원은 399명(확진자 접촉자 148명, 해외입국자 251명)이다. 이상민기자

■ 교육부, 2020 초·중·고 희망직업 조사

초등 ‘운동선수’- 중·고생 ‘교사’ 1위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희망직업 1위는 ‘운동선수·교사’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은 운동선수, 중·고등학생은 교사로, 2018년부터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초·중·고생 2만3223명과 학부모 1만6065명, 교원 2800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제주지역 응답자는 초등학생 174명, 중학생 214명, 고등학생 224명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희망직업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의사, 3위는 교사였다. 중학생은 교사, 의사, 경찰관 순이었고 고등학생은 교사, 간호사,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순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결과는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은비기자

도테니스협회 보조금 부당사용 의혹 조사

제주도테니스협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4일 도내 체육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도테니스협회로부터 3년치(2017~2019년) 결산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제출된 장부는 최근 3년간 제주도테니스협회에 지급된 보조금 및 정산 내역이 담겨졌다. 다만 지난해 결산 자료는 코로나19로 관련 사

업이 대부분 취소돼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관련 정보가 입수돼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테니스협회 관계자는 “경찰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해 보조금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직권남용 의혹 경찰간부 불구속 기소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온 제주경찰 고위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모 방송사는 지난해 8월 변호사 피살사건을 재조명한 내용을 방영하면서 A경정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도내 모 조직폭력배 두목을 특별 면회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는 주장을 실었다. 또 조직폭력배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주장도 함께 담았다.

경찰청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벌이던 중 A경정이 조직폭력배 두목을 면회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 의견을 달아 제주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면회 시기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관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수용자의 경우 미결 수용자와 같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변호인과는 접촉차단시설이 없어 도 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A경정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 자문을 얻었는데 변호사들은 내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조직폭력배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거나 편의를 봐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한 조직폭력배 두목을 왜 면회했는지에 대해서는 “발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월령포구서 상괭이 사체 발견

지난 23일 오후 1시48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 풍력발전기 인근 해안가서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제주해경은 돌고래 사체에 대해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

의를 했고, 죽은지 약 10일 정도 지난 암컷 상괭이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사체를 지자체에 인계했다.

한편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보호종으로 등재돼 있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다. 송은범기자



봄 내음 나는 섬지코지 등대 24일 서귀포시 섬지코지 등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봄 내음 나는 주변 경관을 감상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비자림로서 차량 화재

지난 23일 오후 5시54분쯤 제주시 교래리 비자림로에서 아반떼 렌터카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 만에 진압됐다.

>> 사진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렌터카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82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엔진 하단에 생긴 구멍에 연료가 누유되면서 불이 난 것



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3년전 기침 악연이...

열람객 협박 40대 벌금형

도서관에서 열람객을 협박한 40대에 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17일 오후 3시50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A(42)씨를 보자 “잠시 밖으로 나오라”고 말을 하고, 뒤따라 나온 A씨에게 욕설과 함께 “도서관

에 한 번 더 오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인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A씨가 열람실에서 기침을 하고,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창문을 열었던 일 등으로 김씨로부터 거칠게 항의를 받았던 것이다. 이후 A씨가 김씨를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했지만, 피해자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은 ‘각’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일 뿐, A씨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은범기자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